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음 1월 10일) 제15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민의당 김근식 전주 덕진 예비후보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 호소

“구태정치 심판·정권교체 희망 만드자

정동영 덕진 선택시 “당 전략공천 따를 것”

정동영 전 의원 국민의당 합류에 대한 마지막 판은 끝났다. 국민의당 김근식 예비후보(전주덕진)가 16일 정 전의원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당과 4.13 총선 전주 출마를 촉구하면서 이런 관측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김근식 예비후보가 자신이 출마선언한 지역구를 거론하면서 정 전의원의 입당을 요청해 주목 받고 있다. 이날 김근식 예비후보는 “지난 2월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고향 덕진 주민들을 한번 한번 만나면서 새로운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기의 희망을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은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대의가 그 무엇보다 앞서는 목표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정동영 전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을 촉구한다. 호남개혁정

치의 부활, 총선 승리의 길에 함께 하고 싶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구태 정치 심판과 정권교체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 전의원이 덕진을 택하면 아름다운 경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과 협의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당후사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며 “나 보다는 당을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승리와 총선승리를 위해 정 전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덕진 선거구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정 전의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대할 것이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출마하는 것도 좋은 상생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같은 지역의 김 예비후보의 국민의당 입당과 전주출마 촉구에 어려운 쪽은 정 전의원이 됐다. 도내 정치권에선 이번주에 정 전의원의 정계복귀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계복귀와 출마 선언을 미뤄온 데 대한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점점 쌓이고 있다. 조금 더 시점을 늦추면 차라리 이번 총선을 포기하고 국민의당 전열을 유지하기 위한 ‘판 메이커’ 역할을 하는게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다른 입당에선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정계복귀 가능성은 흔들림이 없고 국민의당 입당 문제와는 별개 행보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 전의원이 너무 빨리 노출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전의원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 즉 정계복귀와 덕진 출마 선언 등 모두 현 시점에서 시계제로라하는 것이 문제다. 이 정도 관을 깔아줬으면 다음은 정 전의원의 묶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치는 여당의원(앞쪽)과 침묵하는 야당의원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 향후 대북정책 ‘오직 봉쇄’

박 대통령, 국회 연설

‘대화’ 보단 ‘제재’ 우선

신뢰프로세스 사실상 폐기

우방과 공조 대북압박 강화

한반도 신냉전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북정책을 국제공조 속에 ‘봉쇄’에 초점을 맞춘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이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남북간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신냉전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

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안보 불감증과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보건 의료 사업을 진행했다. 이밖에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성민원대 발굴사업 등도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된 각종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사업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남북 간 유일한 교류협력 창구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내린 극약 처방이다. 이에 맞춰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광물’ 거래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방콕발타이시아(BDA)식 제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법안을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요 우방국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서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 나갈다는 전략이다. 한편 여야는 16일 고강도 대북 압박을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북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주기자

여야, 내일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최종 타결 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의 만남을 4+4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안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내용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안당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회동해 법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며 “최종 타결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실 쟁점법안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며 “거의 다 처리됐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만 통과시켜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하면서 유권자를 뵈면 면목이 없다”며 “결과 성을 다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19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자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단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간 얘기”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며 “당면 현안이 아니다. 압축적인 잠정적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도 “18일 저녁 정도에 당 대표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선거구

와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조율을 할 것이고 그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실질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거의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로 좁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 부분은 거의 다 의견 일치를 봤고 석패율 제도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기자

▶ 매일 INDEX
4면 ‘비수술적 척추관절 리베이트 제공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 GRAND OPEN
◆사전운영기간 2015. 9 ~ 2016. 3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

남원시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기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